

무주군, '산불예방' 총력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일부 등산로 폐쇄... 상세구간 군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산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일부 등산로도 폐쇄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입산통제구역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산 등 379필지(5.244ha)이며 등산로는 민주지산과 대덕산, 조항산, 백운산 등 11개 구간 총 39.5km를 폐쇄(상세구간 무주군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한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산림보호팀 이수혁 팀장은 "봄, 가을철 사람들의 방문을 줄여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5항의 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며 "산림은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가치를 키우는 자선인 만큼 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산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일부 등산로도 폐쇄한다.

구축하고 있으며 산불요인 차단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상황 관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기반시설 강화, 80여 명의 산불감시 및 진화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상·벌점을 부여하는 등 주민들의 자

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무주군은 현재 진화차량 8대와 무인 감시카메라 7대, 동력펌프 7대, 등짐펌프 등 장비 6종 790대를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더 겸손한 자세로 본선 임할 것"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53.1% 지지 얻어

전춘성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군민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에 감사드리며 더욱 겸손한 자세와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본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북도민일보, 전라

일보, 전주MBC, JT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전춘성 후보는 53.1%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전 예비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진안주민들의 민심은 '지역 내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특화산업 발굴육성' 등 먹고사는 경제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진안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풍요로운 진안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전춘성을 꼭 군수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마이산을 관광할 수 있는 조망 8개 거점을 지정하고 전망데크 등 포토존을 3개년에 걸쳐 20억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이다.(지정산에서 바라본 마이산 조망사진.)

진안군, 마이산 조망 8개 거점 지정

전망데크 등 포토존 20억원 투입해 설치키로

진안군은 19일 마이산을 관광할 수 있는 조망 8개 거점을 지정하고 전망데크 등 포토존을 3개년에 걸쳐 20억 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림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관광단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이산 조망 8개 거점 대상지는 관

내 주요 산인 △운장산 △구봉산 △지장산 △부귀산 △천반산 △덕태산 △내동산 △대덕산 정상부다. 군은 지난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올해 운장산, 구봉산을 시작으로 3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망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마이산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 포인트를 정비해 관광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경찰서, 상습 불법 주·정차 근절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개최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회의에서 관내 풀마트 사거리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기능별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자체와 위 구간에 주차위반 CCTV 설치, 무주읍 공용주차장 확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질적인 상습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공용주차장 이용안내 홍보를 위해 상가 밀집 지역에 대형 공용주차장 안내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박종삼 무주경찰서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주차문화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홍삼spa 전경 사진.

진안군, 코로나19 관련 휴장시설 일제 정비

진안군은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장 중인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제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독과 함께 홍삼spa, 관광정보센터 등 주요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도색과 안내도 등을 재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공원사업소 김현수 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시설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진안군보건소, 24시간 운영

출입구 일원화·비상방역 대책본부 인력 총원 등 감염병 차단에 행정력 집중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선별진료소인 진안군보건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인 진안군의료원에 지난 14일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 입소로 진안군의료원의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진안군보건소가 비상근무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선별진료소는 공중보건의, 간호사, 행정요원 등 총 4명의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보건소는 보다 철저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기타 출입구를 모두 통제했다.

또한 의심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비상방역 대책본부의 인력을 총원했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을 막고 군민들이 선별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진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430-8521~3)으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진안군은 지난해보다 57% 증액된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주택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최대 344만원, 지방개량에 최대 427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비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말 사업 대상자 접수를 완료하고, 공사 업자 선정을 마쳤다. 주택철거 215동, 비주택철거 20동, 지방개량 25동에 대해 이달 말부터 현장 방문하여 면적조사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2012년부터 주택 지붕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관리사업 추진

장수군이 승차 대기자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로변 차량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해 간이버스승강장 3개소를 신규설치하고 10개소를 보수한다. 또 태양광조명시설 12개소, 무개승강장 11개소 설

치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까지 228개소의 간이승강장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별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